
주요국 예산안 - 영국

2018. 1.

연구책임자

윤성주 센터장

김우현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김선미 전문연구원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인 견해로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목 차

1. 경제 및 재정전망	1
가. 경제전망	1
나. 재정전망	2
2. 예산기조	5
3. 예산안 내용	8
가. 세입	8
나. 세출	12
4. 주요 재정정책	17
가. 경제성장	17
나. 재정건전화	20
다. 기타	22

영국 개황

- FY2018-19 : 2018년 4월 ~ 2019년 3월
- 출처 :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 환율 : 1파운드 = 약 1,572.18원(2016년도 평균)
- 경제규모 : 2016년 경상GDP 2조 7,949억 달러(우리나라 약 1.5배 수준)
- 수출입의 대GDP 비율(명목) : 2016년 기준 58.0%(우리나라 77.7%)
- 인구 : 6,564만명(2016년 기준)
- GDP 및 인구 추이 :



<요 약>

□ 경제 및 재정전망

- (경제전망)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으로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8년 실질 GDP 성장률 전망을 기존 2.0%에서 1.4%로 대폭 하향 조정
- (재정수지) FY2017-18 GDP대비 2.4%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8-19에 1.9%로 감소. 지난 전망 대비, 단기 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중기 전망은 악화
- (국가채무) FY2017-18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역대 최고치인 86.5%를 기록한 후, FY2018-19부터 매년 감소할 전망

□ 예산기준

- 2017 가을예산안은 영국의 성장세 둔화를 감안하여 긴축적 예산기준을 다소 완화하면서, 인프라와 교육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방점을 두고 편성

□ 예산안 내용

- (세입) FY2018-19 총경상수입은 7,698억 파운드에 예상되며, VAT, 취득세 등의 세수전망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전망 대비 66억 파운드 하향조정
- (지출) FY2018-19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93억 파운드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40억 파운드(1.76%) 증가

□ 주요 재정정책

- (경제성장) 국가생산성투자펀드를 기반으로 인프라 구축,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재정건전화) 2016년 11월 개정된 재정목표를 기반으로 재정수지, 채무, 복지 지출 통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실시로 공공지출 통제
- (기타) EU 탈퇴 준비 예산마련, 주택공급 종합 정책 발표, 국가보건서비스 개선,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1. 경제 및 재정전망

가. 경제전망

<표 1> 주요 경제전망

(단위 : %)

경제 전망	실적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GDP	1.8	1.5	1.4	1.3	1.3	1.5	1.6
- 가계소비	2.8	1.5	0.8	1.2	1.2	1.5	1.6
- 정부소비	1.1	0.3	1.0	0.7	0.5	1.0	1.0
- 기업투자	-0.4	2.5	2.3	2.3	2.4	2.4	2.4
- 정부투자	1.5	2.4	1.4	2.3	6.2	1.1	0.9
물가상승률(CPI)	0.7	2.7	2.4	1.9	2.0	2.0	2.0
실업률(LFS)	4.9	4.4	4.3	4.4	4.6	4.6	4.6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1.1

- (경제성장률) 예산책임청(OBR)은 2017년 3월 *Economic and Fiscal Outlook*에서 영국의 2018년 실질 GDP 성장률을 2.0%로 전망하였으나, 2017년 11월 전망에서는 1.4%로 대폭 하향 조정
 -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이 지속됨에 따라 가계소비와 기업투자가 위축되었으며, 2017년 년초부터 기대에 못미치는 성장세를 보임
 - 2018년에는 실질 GDP 성장률이 1.4%로 감소하며, 이후 2019년 1.3%, 2020년 1.3%의 저조한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

<표 2> 경제성장률 전망 변화

(단위: %)

	실적	전망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가을예산안(2017.11월)	1.8	1.5	1.4	1.3	1.3	1.5	1.6
봄예산안(2017.3월)	2.2	1.8	2.0	1.6	1.7	1.9	2.0
변화	-0.4	-0.3	-0.6	-0.3	-0.4	-0.4	-0.4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3, Table 1.1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1.1

- (물가) 2016년 0.7%인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017년 2.7%로 상승하여, 영란은

행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전망

- 파운드화 가치절하(depreciation)와 국제 상품 가격의 상승으로 지난 2월 이례로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이 2%를 상회
- 소비자물가(CPI) 상승률은 2017년 4분기 최고치인 3%을 기록한 후 2018년에 다소 완화되나 당분간은 높은 수준이 이어질 전망

□ (실업률) 영국 노동시장은 견고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16년 4.9%였던 실업률은 2018년 4.3%로 감소할 전망

- 전체 일자리 수가 2010년 대비 300만개 증가하였으며, 여성고용자와 풀타임 일자리의 증가추세가 두드러짐
- 2017년 9월 고용률은 75%로 나타났으며, 실업률 또한 4.3%까지 하락하면서 1975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

나. 재정전망

<표 3> 공공부문 재정총량 전망

(단위: GDP대비 %)

	실적	전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세입·세출							
경상세입(a)	36.7	36.5	36.6	36.7	36.7	36.6	36.7
총관리지출(TME)(b)	39.0	38.9	38.5	38.3	38.2	37.9	37.7
공공부문 경상지출(c)	35.0	34.9	34.8	34.3	33.8	33.6	33.5
공공부문 순투자(d)	2.0	2.0	1.8	2.0	2.4	2.3	2.3
감가상각(e)	2.1	2.0	2.0	2.0	2.0	2.0	2.0
재정목표 및 보완적 목표							
경기조정 공공부문 순차입	2.2	2.3	1.8	1.5	1.3	1.2	1.1
공공부문 순채무	85.8	86.5	86.4	86.1	83.1	79.3	79.1
재정적자							
공공부문 순차입(b-a)	2.3	2.4	1.9	1.6	1.5	1.3	1.1
경상적자(c+e-a)	0.4	0.4	0.1	-0.4	-0.9	-1.0	-1.2
안정성장협약(SGP) 기준							
일반정부 적자 ¹⁾	2.3	2.4	2.0	1.8	1.6	1.6	1.2
일반정부 채무 ¹⁾	86.8	87.0	87.3	87.4	87.0	86.8	86.3

주: 1) 마스트리히트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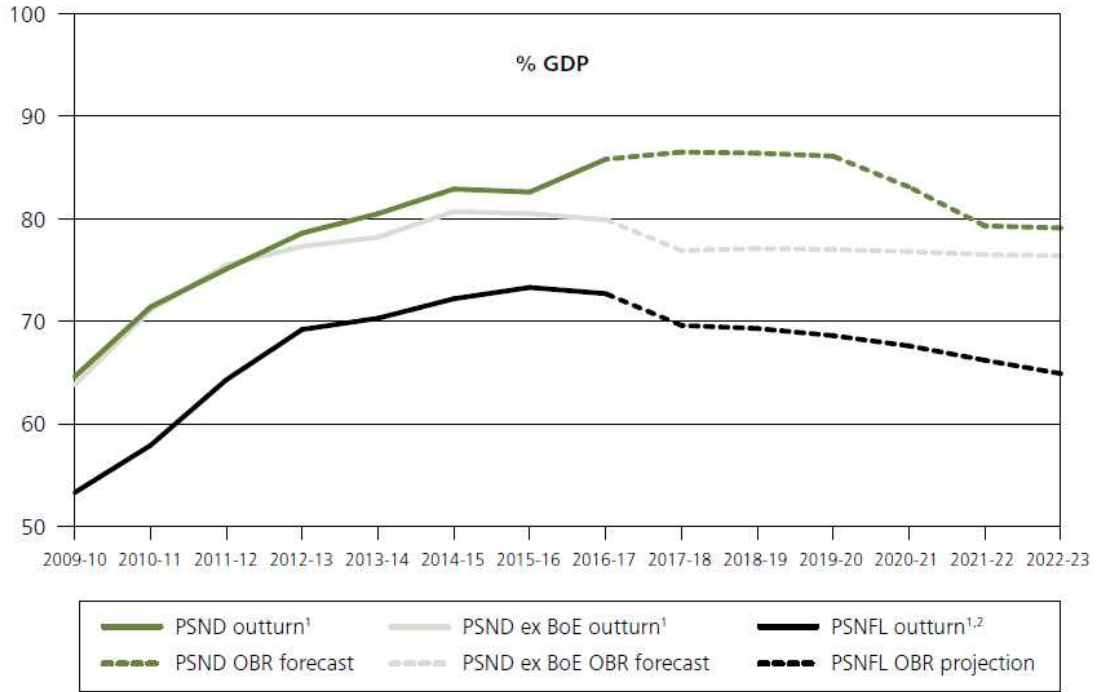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43

- (재정적자) FY2017-18 GDP대비 2.4%였던 공공부문 순차입 규모가 FY2018-19에 1.9%로 감소하며 이후 전망기간 동안 감속세가 지속
 - 3월 봄예산안 대비, 단기 차입전망은 개선되었으나 중기 차입전망은 악화
 - (단기) FY2017-18 공공부문 순차입은 세수 증가 및 정부지출 축소의 영향으로 3월 전망대비 84억 파운드 감소한 499억 파운드
 - (중기) FY2019-20 공공부문 순차입은 경제 둔화 전망과 그에 따른 정책수단 도입 등이 반영되어 지난 전망대비 134억 파운드 증가한 347억 파운드
 - FY2018-19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가 1.8%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새롭게 설정된 재정목표(Fiscal Mandate)¹⁾를 충족
- (국가채무) 차입이 감소함에 따라 FY2017-18 이후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PSND; Public Sector Net Debt) 비율이 감소할 전망
 - FY2017-18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은 지난 50년간 최고치인 86.5%를 기록할 전망
 - FY2018-19부터 GDP대비 순채무 비율이 매년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²⁾를 충족

1) 2016년 11월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을 수정하여, FY2020-21까지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하는 것을 재정목표로 설정

2) 2016년 11월 예산책임헌장을 수정하여, FY2020-21까지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추세가 감소로 전환되도록 하는 채무준칙을 보완적 재정목표로 설정

[그림 1] 공공부문 순채무(PSND)



주: 1) FY2016-17는 OBR의 추정치

2) PSNFL(Public Sector Net Financial Liabilities)은 통계청이 발표한 수치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Chart 1.6

2. 예산기조

- 2017 가을예산안은 영국의 성장세 둔화를 감안하여, 향후 몇 년간 긴축적 예산기조를 다소 완화하는 방향으로 편성
- 미래를 위한 경제 구축(Building an economy fit for the future)
 - 지난해 설정한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 규모를 기존 230억 파운드에서 310억 파운드로 확대
 - FY2020-21까지 GDP대비 공공투자 비율을 지난 30년 이래 최고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도입
 - (교통) 도시 연계성 향상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를 통한 17억 파운드 신규 지원
 - (R&D) 역대 R&D 지원 예산을 뛰어넘는 대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 FY2021-22부터 23억 파운드 규모의 국가생산성투자펀드 투입
 - (장기 투자) '인내자본(Patient Capital)³⁾ 조성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200억 파운드를 투입하여 공적 펀드를 조성하고 사적 펀드를 지원
 - (Emerging Tech) 세계시장의 선두에 서서 데이터, 인공지능 사용의 윤리 및 기준을 확립하고, 무인 자동차 규제 체제를 수립
 - (기술) 노사간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습득 계획(National Retraining Scheme) 시행
- 주거 수요 충족을 위한 주택 건설(Building the homes our country needs)
 - 부동산 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번 의회 말까지 연간 30만개의 주택을 신규 공급
 - 향후 5년간 153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투입하여, 총 440억 파운드의 주택지원 예산을 마련

3)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은 장기자본과 유사한 개념으로 높은 투자 불확실성 및 장기간의 자금회수기간을 감내하며 투자되는 자본을 지칭

- 주택용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택지 개발 계획을 마련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Stamp Duty) 면제 조건인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25,000 파운드에서 300,000 파운드로 인상

□ 국민, 기업, 국가보건서비스 지원(Supporting people, businesses and the NHS)

-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기반 강화와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향후 63억 파운드 규모의 예산을 증액

- 현 정권은 의료서비스 품질과 신속성 향상을 위하여 이번 의회 말까지 최소 80억 파운드의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하였으며, 이번 예산안에서는 28억 파운드의 집행 계획을 발표

- 현재 영국의 급격한 물가상승 기류는 경제 전반의 위협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임금향상, 생활비 감소,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을 편성

- 연료세를 8년 연속 동결함으로써 운전자당 연평균 160파운드의 세금 절감효과가 발생

- 기업의 비거주재산세율(business rate)⁴⁾ 부담 경감을 위해 23억 파운드의 예산 추가 지원

-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과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최저임금(National Minimum Wage) 인상

- 소득세 인적공제액을 11,850파운드로 인상하며, 세율 40%이 적용되는 소득세율 구간을 기존 45,000파운드 초과에서 46,350파운드 초과로 상향조정

□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A fair and sustainable tax system)

- 근로자와 기업에 대한 기존의 저세율 기조를 유지하며, 조세 회피 및 역외 탈세를 방지를 통해 텍스갭(tax gap)을 축소

- 온라인 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탈루 단속 강화, 국세청(HMRC; Her

4)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는 상점, 사무실, 공장, 주점 등과 같은 비거주용 부동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2016년 3월 기준 영국의 180만개 부동산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산(지역사회·지방자치부, Local Government Finance Statistical Release, 2017.3.6)

Majesty's Revenue and Customs)의 세금 추적 시스템 확충

- 역외탈세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시 적용되는 심사가능 기간을 연장하며, 역외 과세 구조를 세무당국에 공개하도록 규율하는 새로운 국제 법규 지원

□ 2017 가을예산안에서 도입한 정부정책이 FY2018-19 동안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총 60억 파운드로 추정

- FY2018-19 정부정책으로 지출이 44억 6천만 파운드 확대되며, 세입은 15억 8천만 파운드 축소될 전망

<표 4> 2017 가을예산안 정책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지출정책	-150	-4,460	-7,190	-3,625	-1,450	-1,105
세입정책	-80	-1,585	-2,725	+310	-1,510	-1,415
총 정책효과	-230	-6,045	-9,915	-3,315	-2,960	-2,520

주: 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며,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1

3. 예산안 내용

가. 세입

- 가을예산안에서 도입한 세입정책으로 FY2018-19 15억 8천만 파운드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며, FY2020-21를 제외하고 향후 전망 기간 동안 세입을 감소시킬 것으로 보임⁵⁾
 - FY2018-19 '주거 및 주택소유'과 '가족 및 근로자 지원' 정책으로 각각 5억 6천만 파운드, 10억 5천만 파운드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전망
 - 생애 첫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가격을 30만 파운드로 인상하며, 이로 인해 첫 주택 구입자 중 80%가 면세혜택을 받을 전망
 - FY2018-19 연료세 동결로 8억 3천만 파운드, 주세 동결로 2억 2천만 파운드의 세수감소가 발생할 전망
 - '미래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FY2018-19 2억 9천만 파운드의 세수감소가 발생
 - 2018년 4월부터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조정기준을 기존 소매물가지수(RPI)에서 CPI로 변경⁶⁾하며, 이로 인해 향후 23억 파운드의 세수감수 감소효과 발생
 - '조세 회피·탈루·과오납 방지',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 정책으로 FY2018-19 각각 1억 2천만 파운드, 2억 3천만의 파운드의 세수 증가 효과가 발생

<표 5> 2017 가을예산안 세입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주거 및 주택소유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125	-560	-585	-610	-640	-670

- 5) 지난 봄예산안(2017.3)에서는 정책으로 인해 FY2017-18 1억 6천만 파운드의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FY2018-19 이후에는 국민보험기여금 기여율 인상, 배당세액공제액 축소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
- 6) 비거주재산세 요율은 물가상승률에 연동하여 매년 변경되도록 설계되어 있음. 향후 RPI보다 CPI이 낮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며, 적용 물가지수를 CPI로 변경할 경우 산출세액이 감소하는 효과 발생

빈집에 대해 고율 지방세 부과	0	0	0	0	+5	+5
가족 및 근로자 지원						
연료세 동결	0	-830	-825	-845	-865	-885
주세 동결	-35	-225	-230	-230	-235	-240
항공여객세 동결	0	0	+25	+25	+25	+30
미래를 위한 경제						
석유 및 가스 양도세	0	+5	+20	+10	+10	+25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조세 경감	0	0	+45	+35	-15	-20
비거주재산세: CPI로 변경	0	-240	-530	-525	-520	-520
비거주재산세: 주점에 대해 면제	0	-30	0	0	0	0
골재부과금(aggregates levy) 동결	0	-15	-10	-10	-10	-10
도로 사용료 동결	0	-15	-10	-15	-15	-15
조세 회피·탈루·과오납 방지						
조세 회피 및 탈루 방지 강화	-10	+10	+170	+585	+580	+740
법인세: 회피 방지 조치	+15	+45	+45	+45	+45	+45
법인세: 감가상각	+5	+10	+10	+10	+10	+10
원천징수하는 로열티 대상 확대	0	0	+285	+225	+160	+130
온라인 상거래 VAT 단속 강화	0	+10	+20	+40	+50	+45
역외탈세 세무조사 기간 연장	0	*	*	*	+5	+10
성과보수(carried Interes): 자본이득세 회피 방지	0	+20	+170	+165	+150	+145
세금 체납 방지를 위한 파산제도	0	-5	+70	+135	+150	+150
Dynamic coding-out of debt	0	0	+55	+30	+20	+20
건설 공급망의 VAT 오류 시정: 매입자납부제(reverse charge) 도입	0	0	+90	+135	+105	+75
불법 폐기물 업체에 중과세	0	+30	+45	+45	+50	+45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조세체계						
법인세: 물가연동공제액 동결	+30	+165	+265	+345	+440	+525
자본이득세: 과세대상 확대	+5	+15	+35	+115	+140	+160
비거주재산 소득: 소득세에서 법인세로 이전	0	0	0	+690	-310	-25
자본이득세 납부기한 단축 연기	0	0	-1,200	+950	+235	+10
VAT 신고 기준 유지	0	+15	+55	+105	+145	+170
담배세 인상 및 담배최저한세 (minimum excise duty) 도입	+45	+35	+40	+45	+40	+35
기타 공공지출						
스코트랜드 경찰 및 소방	0	-40	-40	-40	-45	-45
대기 질						
기업차량세(Company Car Tax) 인상	0	+70	+35	-30	+130	+90
자동차소비세(Vehicle Excise Duty) 인상	0	+125	+50	+10	*	*
기존 정책						
대학등록금대출 상환 조건 완화	0	-50	-100	-175	-235	-295

대학등록금 상한선동결	0	-5	-15	-25	-35	-45
Class 4에 대해 국민보험기여금 기여율 9% 유지	-10	-125	-645	-685	-565	-525
디지털 세무행정 시스템	*	*	-65	-245	-515	-585
총 세입정책 효과	-80	-1,585	-2,725	+310	-1,510	-1,415

주: 1) * 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 세입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세입이 감소함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2.1

□ OBR 11월 전망에 따르면 FY2018-19 총경상수입은 7,698억 파운드에 예상되며, VAT, 취득세 등의 세수전망 감소에 따라 지난 3월 전망 대비 66억 파운드 하향 조정

- (소득세) FY2018-19 원천징수(Pay as you earn)세액 전망은 지난전망 대비 1억 파운드 증가하였으며, 자진신고(Self Assessment) 세액은 7억 파운드 증가
- (법인세) 11월 전망 대비 역내(onshore) 세수는 2억 파운드 증가 하였지만 역외(offshore) 세수는 3억파운드 감소하여, 총 1억 파운드 세수 하향조정
- (VAT) 가계지출 감소 예상됨에 따라 세수를 지난전망 대비 5억 파운드 하향조정
- (취득세) 주택 가격 하락 추세, 생애 첫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정책을 반영하여 지난 전망대비 7억 파운드 하향 조정
 - 가계소득 증가 부진, 인구 증가세 둔화로 인해 향후 주택 가격은 하락하고 주택 거래는 감소할 전망
- 전망기간 동안 수입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FY2022-23에는 8,713억 파운드로 예상

<표 6> 경상수입 전망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소득세	177.2	177.2	184.7	191.2	198.9	206.0	214.3
국민보험기여금((NICs)	125.9	131.0	134.4	138.3	142.8	148.0	153.2
VAT	121.6	125.8	130.3	134.3	138.8	143.2	147.8
법인세	54.1	52.8	55.4	54.4	54.6	55.1	57.2
석유세	-0.7	-0.6	-0.5	-0.5	-0.5	-0.5	-0.4
연료세	27.9	27.9	28.0	28.6	29.2	29.9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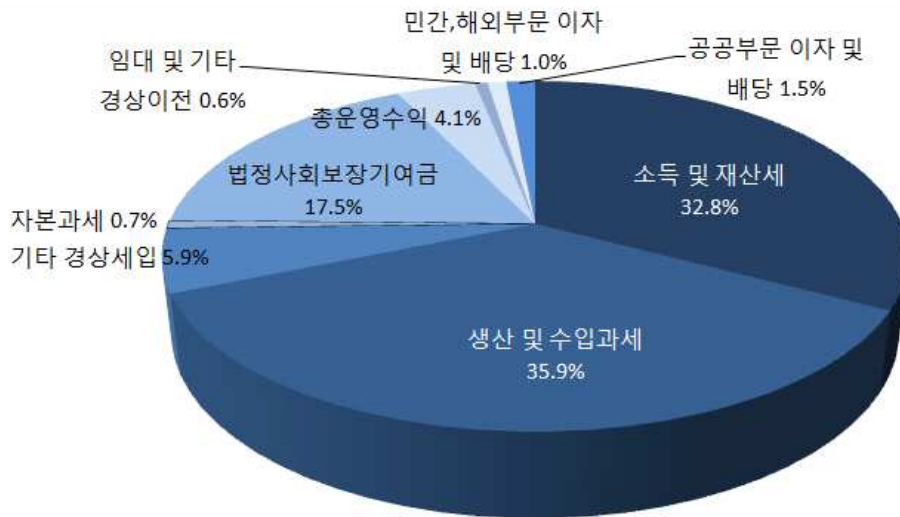
(단위: 십억파운드)

	실적	전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비거주재산세	29.2	29.3	30.5	31.3	31.7	32.2	33.6
지방세(Council tax)	30.4	32.2	33.8	35.1	36.2	37.2	38.3
VAT 환급(refunds)	13.8	14.1	14.5	14.5	14.8	15.1	15.3
자본취득세	8.4	8.8	9.9	10.9	12.6	12.5	13.3
상속세	4.8	5.3	5.4	5.7	5.9	6.2	6.5
취득세	11.9	13.2	13.2	13.7	14.4	15.1	15.8
취득세(on shares)	3.7	3.4	3.5	3.6	3.7	3.9	4.0
담배세	8.7	9.4	9.2	9.2	9.1	9.0	9.0
산업용주정(spirits)세	3.3	3.5	3.5	3.6	3.7	3.8	3.9
와인세	4.2	4.3	4.3	4.5	4.6	4.8	5.0
맥주 및 과일주(cider)세	3.6	3.7	3.7	3.8	3.9	4.0	4.1
항공여객세	3.2	3.3	3.5	3.6	3.8	3.9	4.0
보험료세	4.9	5.8	6.0	6.0	6.0	6.0	6.0
기후변화세	1.9	1.8	1.9	2.2	2.3	2.3	2.3
기타 국세(HMRC taxes)	7.4	7.3	7.3	7.5	7.6	7.6	7.7
자동차세	5.8	6.0	6.2	6.2	6.3	6.5	6.8
은행세(Bank levy)	3.0	2.6	2.6	2.5	2.1	1.2	1.3
은행추가세(Bank surcharge)	1.6	1.8	1.7	1.8	1.8	1.8	1.9
견습세(Apprenticeship Levy)	0.0	2.7	2.7	2.8	2.9	3.0	3.1
면허료 수입	3.2	3.2	3.3	3.4	3.4	3.5	3.6
환경부담금	5.2	8.6	10.5	11.7	12.3	12.9	13.3
EU ETS 경매세	0.4	0.4	0.6	0.6	0.4	0.4	0.5
Scottish taxes	0.6	0.7	1.0	1.0	1.1	1.1	1.2
우회이익세(Diverted profits tax)	0.1	0.2	0.3	0.3	0.2	0.1	0.0
설탕세(Soft drinks industry levy)	0.0	0.0	0.3	0.3	0.3	0.3	0.3
기타 조세	7.2	7.0	6.8	7.2	7.4	7.7	7.8
국민계정 조세수입	672.7	692.8	718.6	739.0	762.0	783.7	811.0
EU 부담금 공제	-3.4	-3.5	-3.5	-3.5	-3.5	-3.5	-3.5
이자 및 배당	6.5	7.1	8.1	9.1	9.8	11.0	12.4
총 운영수지	47.2	45.5	43.1	44.0	45.4	47.1	48.8
기타수입	3.7	3.5	3.4	3.4	3.5	3.4	2.7
총 경상수입	726.7	745.4	769.8	792.0	817.2	841.6	871.3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5.6	1.3	-6.6	-14.5	-17.6	-27.9	-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6 및 4.7

- FY2018-19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원은 생산 및 수입과세가 35.9%(2,674억 파운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 소득 및 재산세 32.8%(2,522억 파운드), 법정 사회보장기여금 17.5%(1,310억 파운드), 기타 경상세입 5.8%(451억 파운드)등의 순으로 구성

[그림 2] FY2018-19 일반정부 기준 경제유형별 세입규모



출처: OBR, EFO Fiscal Supplementary Tables, 2017.11, Table 2.39

나. 세출

- 가을예산안의 정책 결정으로 인한 FY2018-19 재정지출 확대 규모는 총 44억 6천만 파운드로 추산
 - 가장 큰 재정지출 확대효과가 나타나는 영역은 국가보건서비스 관련 정책으로 FY2018-19 총 23억 2천만 파운드의 재정지출이 증가
 - '주거 및 주택소유' 정책으로 FY2018-19 2억 7천만 파운드의 지출이 증가하며, 향후 전망 기간 동안 총 61억 파운드의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효과가 발생할 전망
 - FY2018-19 '미래를 위한 경제' 정책으로 17억 5천 파운드의 지출증가가 발생하며, 이중 대부분은 EU탈퇴 대비 예산(15억 파운드)이 차지

<표 7> 2017 가을예산안 지출정책 효과

(단위: 백만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주거 및 주택소유						
Land Assembly Fund 신설	0	0	-220	-355	-355	-355
Housing Infrastructure Fund 확대	0	0	-215	-710	-1,070	-1,185
소규모 택지 인프라 및 토질 개선	0	-275	-355	-120	0	0
지방정부 주택건설 투자 확대	0	0	-355	-265	-260	0
공공임대 주택구매권지원	0	0	-85	0	0	0
국가보건서비스						
국가보건서비스(NHS) 추가 지원	-400	-1,900	-1,070	0	0	0
국가보건서비스(NHS) 투자 확대	-600	-420	-840	-1,020	-960	-360
가족 및 근로자 지원						
Targeted Affordability Fund 확대	0	-40	-85	-95	-100	-110
통합수당(Universal Credit) 지원 확대	-20	-310	-340	-335	-275	-185
민간임대주택 지원	0	-10	-10	-	-	-
장애시설보조금 지원 확대	-50	0	0	0	0	0
가족 관계지원(고용노동부 사업)	0	-5	-10	-	-	-
미래를 위한 경제						
EU탈퇴 준비	0	-1,500	-1,500	0	0	0
국가생산성투자펀드	0	0	0	0	0	-7,000
R&D: 국가생산성투자펀드 투자	0	0	0	0	-2,300	-
R&D: 법인세 연구개발세액공제	-5	-60	-170	-175	-170	-175
혁신: 초저공해차 지원	0	-50	-50	0	0	0
혁신: 기술, 인공지능, 지리공간 데이터	0	-70	-75	-	-	-
교통: 시내 교통 투자 확대(Transforming Cities Fund)	0	-10	-240	-285	+525	-
교통: 지역 도로 확충	-55	0	0	0	0	0
Public Works Loan Board	0	*	-5	-5	-5	-5
고숙련: 국가재교육프로그램(National Retraining Scheme) 신설	0	-20	-45	-	-	-
고숙련: 컴퓨터 과학, 수학 투자	0	-30	-50	-	-	-
고숙련: 교직자 전문성 강화	0	-10	-15	-15	-5	0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권한 강화	0	-5	-5	+5	+15	+10
조세 회피·탈루·과오납 방지						
과오납 및 체납 방지를 위한 실시간 정보 활용	0	+85	+75	+65	+40	+40
기타 공공지출						
DEL지출 조정	+1,000	0	-1,135	0	0	0

ODA지출 GNI대비 0.7% 목표	0	+375	0	0	0	0
대기 질						
Air Quality Plan, Clean Air Fund 지원	-20	-180	-215	-80	-	-
기존 정책						
석유 및 가스: 영국 대륙붕 탐사 지원	0	-5	0	0	0	0
City Deal: 스완지 및 에던버러 개발	0	-30	-30	-30	-	-
사회임대주택 기존 임대료 유지	0	0	-155	-205	-255	-320
총 지출정책 효과	-150	-4,460	-7,190	-3,625	-1,450	-1,105

주: 1)*효과가 거의 없음을 의미

2)지출정책 효과가 (-)라는 것은 정부지출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2.1

□ 11월 가을예산안의 FY2018-19 총관리지출(TME) 전망은 8,093억 파운드, 지난 회계연도 대비 140억 파운드(1.76%) 증가

○ 3월 전망대비 79억 파운드 하향조정

- 주택협회(Housing association) 예산항목 조정 등(△110억 파운드)
- 경제변수 가정 변화로 인한 영향(△12억 파운드) : 실업률(△4억 파운드), 인플레이션(△2억 파운드), 인구전망(△3억 파운드), 기타(△3억 파운드)
- 이자율 가정 변화(14억 파운드), 기타 가정 및 변화(8억 파운드)
- 정책변화로 인한 영향(22억 파운드) : 자원 DEL 변화(23억 파운드) 등

□ GDP대비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부처별지출한도(DEL) 및 연간관리지출(AME) 비중의 감소로 인해 향후 하락추세를 나타낼 전망

○ FY2016-17 GDP대비 39%였던 총관리지출(TME) 비율은 FY2018-19에 38.5%로 전망되며,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며 FY2022-23 37.7%까지 감소

- 총관리지출(TME) 비율 하락은 주로 자원 DEL 감소(GDP대비 △1.4%p)와 복지 지출 삭감(GDP대비 △0.4%p)에 기인하며, 자본 DEL 증가(GDP대비 0.7%p)로 다소 상쇄될 전망

○ FY2016-17 GDP대비 18.1%였던 부처별지출한도(DEL) 비율은 FY2022-23에 17.4%로 감소하며, 20.9%였던 연간관리지출(AME) 비율은 20.4%로 감소

<표 8> 총관리지출 전망

(단위 : 십억파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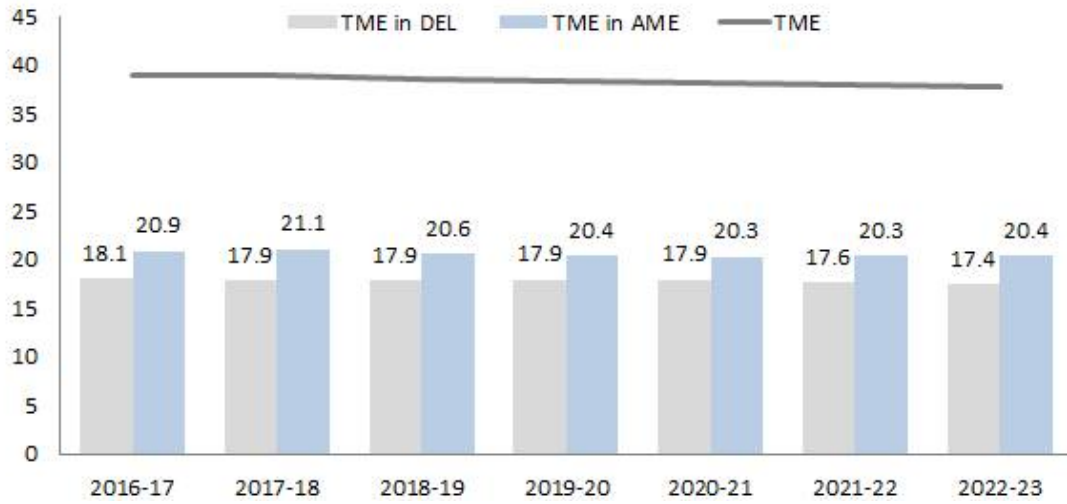
	실적	전망					
	2016-17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공공부문 경상지출							
자원 DEL	312.5	316.8	323.3	327.1	330.3	336.2	342.2
자원 AME	380.5	395.7	406.9	413.0	422.1	436.7	452.9
사회보장급여	216.9	219.8	224.5	228.0	231.8	239.6	248.5
세액공제	3.0	3.7	3.9	4.1	4.3	4.4	4.5
순공공서비스연급	11.2	11.9	13.2	12.5	13.6	15.0	16.6
국가복권	1.4	1.2	1.2	1.2	1.2	1.3	1.3
BBC 내국 서비스	3.7	4.0	3.8	3.8	3.6	3.6	3.7
철도네트워크	0.5	0.6	0.7	0.7	0.7	0.8	0.8
기타부처지출	0.5	0.7	0.8	0.8	0.7	0.7	0.8
EU분담금	8.8	9.9	12.5	-	-	-	-
EU분담금 대체 국내 지출	-	-	-	13.8	14.0	13.6	13.6
지방재정지출	45.2	47.8	50.2	49.3	50.4	52.0	53.7
중앙정부 총채무이자, APF	35.5	40.9	39.8	39.9	40.4	42.2	44.3
채무이자 삭감							
공기업 채무이자	3.8	2.7	0.7	0.7	0.7	0.8	0.8
감가상각	29.9	30.6	31.7	32.8	34.1	35.3	36.6
경상 부가가치세 환급	12.0	12.3	12.7	12.8	12.9	13.1	13.3
환경부담금	5.2	8.8	10.8	12.2	13.4	14.1	14.4
지방정부 귀속연급	1.3	1.3	1.3	1.3	1.3	1.3	1.3
기타 회계 조정	1.4	-0.4	-0.9	-1.1	-1.2	-1.3	-1.3
총 공공부문 경상지출	693.0	712.5	730.2	740.1	752.4	772.9	795.1
공공부문 투자							
자본 DEL	46.1	48.2	52.6	59.7	68.3	68.2	70.6
자본 AME	33.2	34.6	26.5	26.9	29.3	30.6	31.1
세무소송	0.0	0.0	0.2	1.0	2.7	2.9	2.9
철도네트워크 자본지출	6.6	6.5	5.5	6.3	6.5	6.6	6.9
기타 자본지출	1.2	1.1	1.2	1.3	1.6	1.8	1.9
지방재정 지출	9.1	11.1	10.3	9.4	9.0	9.5	9.6
공기업 지출	17.5	15.8	10.4	10.3	10.5	10.7	10.7
회계 조정	-1.1	0.0	-1.0	-1.4	-1.0	-0.9	-0.8
총 공공부문 투자	79.4	82.8	79.1	86.6	97.6	98.8	101.8
감가상각 공제	-40.7	-41.1	-41.2	-42.5	-43.9	-45.3	-46.8
공공부문 순투자	38.6	41.8	37.9	44.1	53.7	53.5	55.0
총관리지출	772.4	795.3	809.3	826.7	849.9	871.7	896.8
3월 전망 대비 변화분	-0.4	-7.1	-7.9	-1.2	-5.4	-14.6	-

주: 총관리지출(TME)은 공공부문 경상지출(자원AME+자원DEL)+공공부문 총투자(자본AME+자본DEL)로 구성

출처: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16 및 4.17

[그림 3] 총관리지출(TME)의 규모와 구성 변화

(단위: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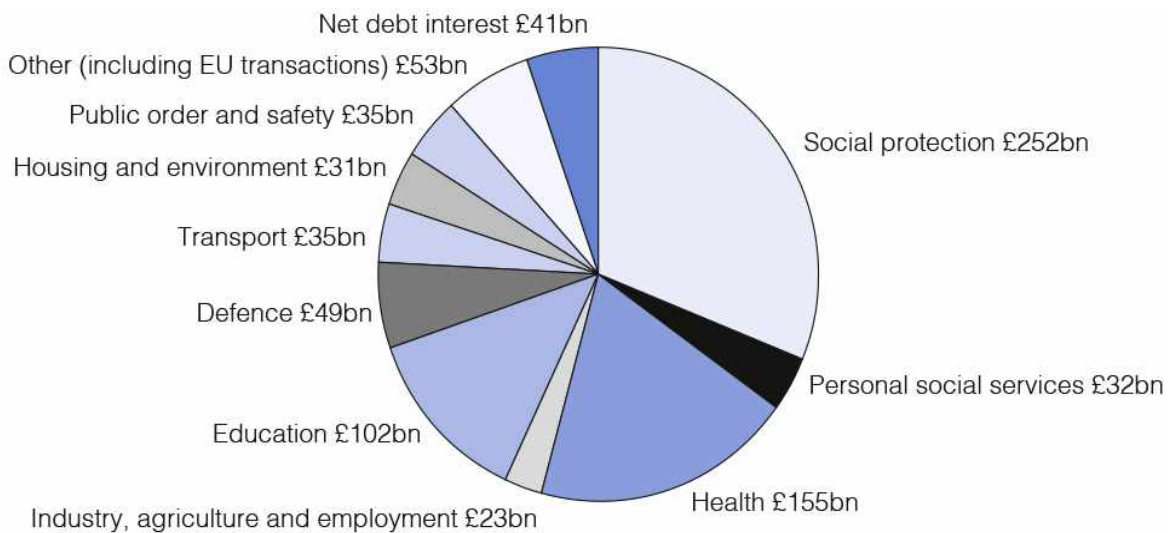


자료: OBR, *Economic and Fiscal Outlook*, 2017.11, Table 4.15

- 전체 공공부문 지출 중 사회보호 31.2%(2,520억 파운드), 의료 19.2%(1,550억 파운드), 교육 12.6%(1,020억 파운드) 분야가 높은 지출 비중을 차지
- 그 밖에 국방이 6.1%(490억 파운드), EU분담금 포함 기타 지출 6.6%(530억 파운드) 등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

[그림 4] FY2018-19 공공부문 기능별 지출 비중(TME: 8,090억 파운드)

(단위: 십억 파운드)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Chart 1

4. 주요 재정정책

가. 경제성장

-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National Productivity Investment Fund)의 기간을 연장하고 투입 자금 규모를 확대
 - 재무부는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FY2017-18년부터 FY2021-22까지 총 230억 파운드의 자금이 투입되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운용 계획을 발표
 - 이번 가을예산안에서는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운용을 FY2022-23까지 연장하고, 자금 규모 또한 310억 파운드로 증가

<표 9> 국가생산성투자펀드(NPIF) 투자 계획

(단위 : 백만 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¹⁾	2022-23 ¹⁾
주택						
Accelerated Construction	90	230	170	200	-	-
Affordable housing	495	605	1,215	610	-	-
Housing Infrastructure Fund	60	300	1,160	2,135	1,060	1,185
Small sites infrastructure and rededication	0	275	355	120	-	-
Land Assembly Fund	0	0	220	355	355	355
교통						
Roads and local transport	365	360	290	415	-	-
Next generation vehicles	75	145	155	115	-	-
Digital railway enhancements	30	55	165	285	-	-
Cambridge - Milton Keynes - Oxford corridor	5	135	0	0	-	-
Transforming Cities Fund	0	140	355	485	1,010	-
Tyne & Wear Metro	0	0	25	35	265	-
통신	25	150	275	290	-	-
연구개발	425	820	1,500	2,000	2,345	-
총 계획	1,570	3,215	5,885	7,045	6,475	7,000

주: 1) 구체적 예산배정 추후 결정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4.1

-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발표를 통해 투자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민간과의 파트너십 정립 (<참고>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 STEM(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s)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

○ National Retraining Scheme 신설 등 평생학습 체계 강화

- 영국노동조합회의와 영국산업연맹은 National Retraining Scheme을 바탕으로 'Skills Advisory Panels'를 구성하여 지역경제의 수요를 반영한 훈련전략을 마련
- 정부는 신생분야에 대한 기술훈련 고안을 위해 노력중이며, 우선 3,000만 파운드 예산을 인공지능 및 에듀테크(EdTech) 교육훈련에 투입
- 직장 내 교육훈련 강화를 위해 2년 동안 850만 파운드 자금을 영국노동조합회의(Trades Union Congress) 조직에 지원

○ 이번 예산안에서는 수학, 컴퓨터공학, 기술교육을 위한 예산을 크게 확대

- 수학교육 강화 : 2,700만 파운드 자금을 수학 프로그램에 투입, 8,000만 파운드 예산을 배정하여 수학전공생이 늘어날 경우 대학에 리워드 제공 등
- 컴퓨터 공학 : 중등 컴퓨터 교사에 대한 전문성 강화 교육을 위해 8,400만 파운드 투입, National Centre for Computing을 신설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 T-levels 제도⁷⁾ 예산을 2,000만 파운드로 증액
- Teacher Development Premium 신설 : 지방 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4,200만 파운드 배정

□ 영국은 G20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법인세율을 유지하면서⁸⁾,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금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

- GDP 대비 R&D 투자를 2027년 2.4%, 장기적으로 3%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2018년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11%에서 12%로 인상
- 기업의 비거주재산세(Business rates) 부담 경감을 위해 23억 파운드의 예산을

7) 2017년 봄예산안에서 도입된 제도로, 16-19세를 대상으로 하는 15개 부분의 기술교육 시간을 연평균 900시간으로 증가시키고 산업현장에 적합한 직업훈련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함

8)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2017년 19%, 2020년 17%의 법인세 인하계획을 제시

추가 배정

- 혁신적 기업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향후 10년간 200억 파운드를 '인내자본(Patient Capital)'에 투자

<참고>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 영국 산업전략(Industrial Strategy: building a Britain fit for the future) (2017.11.27.)⁹⁾

- G7국가들에 비해 낮은 생산성이 영국이 직면한 약점, 생산성 향상을 위한 5대 기초 비전(Ideas, People, Infrastructure, Business environment, Places)과 주요 정책대응을 제시
- (Ideas)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인 경제
 - (R&D 투자) GDP 대비 R&D 투자를 2027년 2.4%, 장기적으로 3%까지 확대
 - (조세 혜택) 2018년 R&D 지출에 대한 세액 공제비율을 11%에서 12%로 인상
 - (펀드) Industrial Strategy Challenge Fund Programme에 7억 2,500만 파운드를 추가 투입
- (People) 일자리의 질과 소득능력(earning power) 향상
 - (기술교육체계) 기술(Technical) 교육 개혁하여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
 - (STEM 투자) 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 분야에 4억 600만 파운드 추가 배정
 - (재훈련) National Retraining Scheme 신설, 디지털 및 건설 훈련에 6,400만 파운드 투입
- (Infrastructure) 고품질 인프라 구축
 - (국가생산성투자펀드) FY2022-23까지 310억 파운드 규모로 증액
 - (전기차) 충전소(Charging infrastructure)에 4억 파운드, 플러그인 자동차 보조금(Plug-in Car Grant)에 1억 파운드 추가 지원

- (디지털 인프라) 5G 네트워크에 1억 7,600만 파운드, 지방 통신 네트워크 구축에 2억 파운드 등을 포함하여 총 10억 파운드 투자
- (Business Environment) 창업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
 - (Sector Deals) 생명과학, 인공지능, 자동차산업에 대해 민관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분야별 합의(Sector Deals)' 제안
 - (혁신산업) 잠재력 큰 기업에 25억 파운드 투자 펀드를 포함해 10년 동안 200억 파운드 투자
- (Places) 지역사회 번영
 - (교통) 도시 내 교통 개선을 위해 17억 파운드 규모의 기금 신설
 - (지방 교직원 지원) 지방 교직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Teacher Development Premium' 사업을 실시하며 4,200만 파운드 배정

나. 재정건전화

-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의 재정목표(Mandate for fiscal policy)¹⁰⁾
 - 재정목표(Fiscal Mandate)
 - FY2020-21까지 GDP대비 구조적 재정수지적자를 2% 이하로 감축
 - 보완적 재정목표(Supplementary Target)
 - FY2020-21에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
 - FY2021-22 복지비용이 가을보고서에서 설정한 복지지출 상한선(welfare cap)

9)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64563/industrial-strategy-white-paper-web-ready-version.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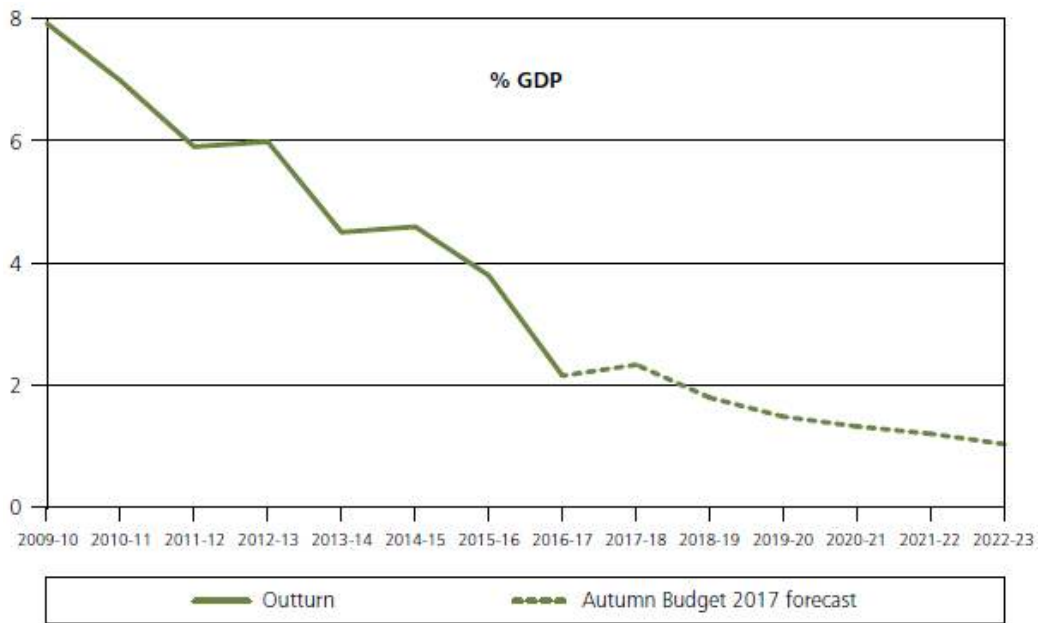
10) 2016년 11월 가을보고서에서 예산책임헌장(Charter for Budget Responsibility) 개정을 통해 새로운 재정목표(Mandate for fiscal policy)를 규정하였으며, 2017년 1월 의회에서 통과됨

and margin)을 준수

□ 이번 가을예산안은 재정목표와 보완적 재정목표를 모두 충족

- (재정목표)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2%이하 달성을 목표시기보다 2년 앞선 FY2018-19에 달성할 전망
- (보완적 재정목표)
 - FY2018-19부터 GDP대비 공공부문 순채무 비율을 하락세로 전환되어 목표 충족
 - FY2022-23에 적용될 복지지출 상한(Welfare Cap)은 1,301억 파운드이며, 불가피한 복지지출 변동성에 대응한 margin(3.0%)을 적용할 경우 실질 지출한도는 1,340억 파운드

[그림 5] 공공부문 구조적 재정수지 적자 전망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Chart 1.5

<표 10> 복지지출 상한

(단위 : 십억 파운드)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22-23
Cap	-	-	-	-	-	130.1
Interim pathway	119.3	120.9	122.1	123.8	126.9	-
Margin (%)	0.5	1.0	1.5	2.0	2.5	3.0

출처: HM Treasury, *Autumn Budget 2017*, 2017.11, Table 1.5

□ 공공지출 통제와 집행 효율성 개선을 통한 재정적자 감축 노력 지속

- 2017년부터 실시한 '효율성 검토'(Efficiency Review)를 통해 FY2019-20까지 35억 파운드를 절감하며, 이중 10억 파운드는 적자감축에 투입되지 않고 지출우선 분야에 재투자될 예정

다. 기타

□ EU 탈퇴 준비를 위해 향후 2년간 총 30억 파운드 예산 배정

- 효율적인 EU탈퇴를 위해 FY2018-19, FY2019-20 각각 15억 파운드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
- FY2018-19 부처별 추가자금에 대한 지출계획은 2018년 초 FY2018-19 추경예산안(Supplementary Estimates)에서 자세히 다루어질 예정

□ 극심한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 종합대책 발표

- 향후 5년간 153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새롭게 투입하여, 총 440억 파운드의 주택지원 예산을 마련
- 건설 분야의 기술혁신과 노동력 유입을 위해 2억 파운드 자금을 투입
- Housing Infrastructure Fund에 27억 파운드자금을 추가 투입하며, 주택수요가 높은 잉글랜드 지역에 주택건설 인프라 확충
-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Stamp Duty) 면제 조건인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125,000 파운드에서 300,000 파운드로 인상
- 빈집에 부과되는 주민세(council tax) 상한을 기존 기납부 평균 세액의 50%에서 100%로 인상
- 홈리스 방지를 위하여 민간임대 주택 입주자 지원에 2,000만 파운드 배정

□ 국가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개선을 위해 63억 파운드 예산 추가 배정

○ 28억 파운드는 자원(resource) 예산으로 배정되며, 응급의료 시스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지출될 예정

- 2017년 3억 3천만 파운드, FY2018-19 16억 파운드, FY2018-19 9억 파운드 지출 예정

○ 35억 파운드는 자본(capital) 예산으로 투입

- 지역 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방 보건조직(Sustainability and transformation partnerships)에 26억 파운드 배정

- 의료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7억 파운드, NHS 시스템 효율성 개선을 위해 2억 파운드가 배정될 예정

□ 국가생활임금 및 최저임금 인상

○ 2018년 4월부터 2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생활임금(National Living Wage)을 시간 당 7.5파운드에서 7.83파운드로 4.4% 인상

○ 24세 이하를 대상으로 하는 법정 최저임금(National Minium Wage) 또한 인상

- 21~24세 최저임금을 7.05파운드에서 7.38파운드로, 18~20세는 5.6파운드에서 5.9파운드로, 16~17세는 4.05파운드에서 4.2파운드로 각각 인상